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 번호

제 [] 선택

윤리와 사상

1. 다음 가상 대화의 스승이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스승님, 이 세상 사람들이 처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고통스러운 삶에 빠져 있는 줄도 모르고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으니 슬프구나.

그렇다면,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든 것이 인(因)과 연(緣)에 의해서 생겨나고 일어난다는 법(法)을 체득해야 한단다.

- ① 자연을 법칙 삼아 도(道)를 따르는 소박한 삶을 살아야 한다.
- ② 충(忠)과 서(恕)를 실천함으로써 인(仁)을 완성해 나가야 한다.
- ③ 사사로운 욕망을 이기고 예(禮)를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 ④ 만물이 상호 의존한다는 사실을 깨쳐 자비(慈悲)를 실천해야 한다.
- ⑤ 의로운 일을 꾸준히 쌓아[集義] 도덕적 삶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

2.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오직 자기 이성의 지배만 받을 뿐이며, 적으로부터 자기의 생명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을: 사람들이 비교적 평화로운 자연 상태를 떠나 사회에 들어가는 것은 그들의 재산을 평온하고 안전하게 향유하기 위함이며, 법률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한 도구와 수단으로 사회에서 확립된 것이다.

- ① 갑: 자기 보존을 위해 권리를 양도함은 정의 발생의 원천이다.
- ② 갑: 주권자는 시민들과 맺은 사회 계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 ③ 을: 시민은 자연법 준수의 의무로부터 벗어난 자유를 누린다.
- ④ 을: 입법부는 신탁(信託)된 권력이 아니므로 교체가 가능하다.
- ⑤ 갑과 을: 개인의 모든 권리는 사회 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부여된다.

3. 근대 한국 사상가 갑, 을이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서양의 도적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선비들을 모아 정학(正學)을 연구하여 밝히며, 간사한 소인을 제거하고 도적과 통하는 자를 막아 탐욕을 용납하지 않아야 한다.

을: 서양의 학(學)은 한울님을 위한 학문이 아니다. 우리 동방의 학은 내 안의 한울님을 모시는 것이니, 항상 마음을 지키고[守心] 기운을 바르게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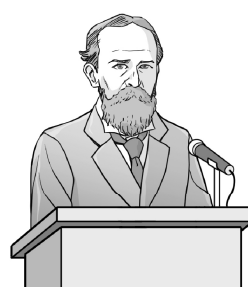
- ① 모든 규범을 버리고 오로지 마음속 한울님을 모셔야 하는가?
- ② 사회가 변하더라도 효제(孝悌)의 정신은 지켜 나가야 하는가?
- ③ 서양의 종교를 배격하고 신분 귀천의 위계를 유지해야 하는가?
- ④ 남녀의 차별이 사라진 평등한 사회를 실현[開闢]해야 하는가?
- ⑤ 유교적 가치를 바탕으로 서양의 과학 기술을 수용해야 하는가?

4.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신은 정신적인 것으로서 그리고 물리적인 것으로서 파악될 수 있다. 자연 안의 모든 것들은 신적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 존재하도록 결정되어 있고, 또한 특정한 방식으로 작용을 산출하도록 결정되어 있다.

- ① 인간은 자연의 인과 법칙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다.
- ② 자연 안에서 오직 인간만이 자기 보존을 위해 노력한다.
- ③ 인간은 신 없이는 존재할 수도 스스로를 파악할 수도 없다.
- ④ 인간은 자신이 처한 감정의 지배 상태에서부터 해방될 수 없다.
- ⑤ 신에 대한 직관적 인식은 인간에게 정신적 만족을 줄 수 없다.

5.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러분이 우리의 방법을 따른다면, 우주의 수수께끼에 대한 형이상학적 해명을 마무리 짓는 그 어떤 명칭도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신', '이성', '에너지' 등과 같은 것들입니다. 여러분은 각각의 명칭으로부터 실제적인 '현금 가치'를 끄집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명칭이 여러분 경험의 흐름 안에서 작동하도록 안착시켜야 합니다. 결국 이론은 도구일 뿐 수수께끼에 대한 최종적 답변은 되지 않습니다.

- ① 이론들은 문제 해결과 무관하게 진리로 인식되어야 한다.
- ② 신학 교리는 형이상학적 해명 없이도 현금 가치를 지닐 수 있다.
- ③ 자연 과학적 개념은 활용될 때보다 이해될 때 더 가치가 있다.
- ④ 관념들은 경험적 증명을 통과하지 않아도 가치를 지닐 수 있다.
- ⑤ 도덕적 지식은 도구적 가치를 산출하지 못해도 유용성을 지닌다.

2 (윤리와 사상)

사회탐구 영역

6. (가)를 주장한 한국 유교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퍼즐 속 세로 낱말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사람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부끄럽게 여기는 성(性)을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다. 그러므로 옳지 못한 재물을 받지 않으면 마음이 떳떳하여 즐겁고, 잘못된 줄 알고도 그것을 받으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
(나)	[가로 열쇠] (A): 불교에서 말하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B): 도가 사상의 근간이 되는 경전으로 『노자』라고도 불리는 책 [세로 열쇠] (A): ……개념

- ① 인간의 도덕적 본성과 감정을 통괄하는 것이다.
 ② 인간과 동물이 모두 지니고 있는 생리적 욕구이다.
 ③ 사단(四端)을 자주적으로 실천하여 형성되는 것이다.
 ④ 인의예지를 확충함으로써 생겨나는 순전한 마음이다.
 ⑤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천리(天理)로서의 도덕적 본성이다.

7. (가)의 고대 동양 사상이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갑: 군자는 소인과 달리 그 본래 선한 마음을 잃지 않아 생명이 죽어가는 모습을 차마 보지 못한다. 그래서 짐승들이 고통받거나 죽어가는 곳을 멀리한다. 을: 군자는 본래 소인과 마찬가지로 영예와 이익을 좋아하고 치욕과 손해를 싫어하는 이기적 본성을 갖는다. 하지만 이 본성에 따르지 않고 도리[道]를 추구한다.
(나)	

<보 기>

- ㄱ. A: 타고난 본성에 따른 행동일지라도 악할 수 있는가?
 ㄴ. B: 백성도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는가?
 ㄷ. C: 사회적 재화의 공정한 분배는 예(禮)로써 가능한가?
 ㄹ. C: 누구나 하늘이 부여한 예를 배우면 교화될 수 있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8. 고대 동양 사상이 갑, 현대 사회사상이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다투지 않는[不爭] 덕은 하늘의 도[天道]에 부합한다. 훌륭한 무사는 무력을 앞세우지 않고, 적을 잘 이기는 사람은 맞서 싸우지 않는다. 이처럼 성인(聖人)의 도는 일은 하되 다투지 않는 것이다.

을: 평화는 폭력을 줄이고 예방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진정한 평화의 실현을 위해서는 직접적 폭력이 제거된 소극적 평화를 넘어 구조적·문화적 폭력까지 제거된 적극적 평화가 중요하다.

<보 기>

- ㄱ. 갑: 전쟁은 무위(無爲)와 무욕(無欲)을 거스르는 행위이다.
 ㄴ. 을: 문화적 폭력은 직접적 폭력이 지닌 부당성을 은폐한다.
 ㄷ. 갑과 을: 진정한 평화는 무력이 없는 상태만으로도 달성된다.

-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9. 고대 서양 사상이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돈과 명성만을 돌보면서 자기 자신의 영혼을 돌보고 있다고 주장하는 아테네인이 있다면 나는 죽을 때까지 묻고 검토하고 논박할 것이다. 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그런 주장을 한다면,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하찮게 여기는 것이다.

을: 쾌락은 행복의 시작이고 끝이다. 쾌락의 시작은 지혜다. 지혜는 지혜롭고 정의롭게 살지 않고서는 즐겁게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또 역으로, 즐겁게 살지 않고서는 지혜롭고 정의롭게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가르친다.

- ① 갑: 도덕적 진리의 탐구가 도덕성 함양에 필수적이지 않다.
 ② 갑: 하나의 덕은 하나의 정의(定義)만으로 규정될 수 없다.
 ③ 을: 몸의 고통이 있어도 영혼의 고통이 없다면 참된 쾌락이다.
 ④ 을: 모든 쾌락은 그 자체로 좋으므로 선택될 만한 가치를 지닌다.
 ⑤ 갑과 을: 행복해지려면 유덕해야 하고 유덕하면 행복해진다.

10. 고대 서양 사상이 갑, 중세 서양 사상이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자연과 일치하는 삶이 곧 목적이다. 이것은 덕에 따르는 삶과 동일하다. 덕에 따르는 삶은, 우주를 주재하고 있는 자의 의지에 정신을 일치시키면서 모든 각각의 일을 행하는 삶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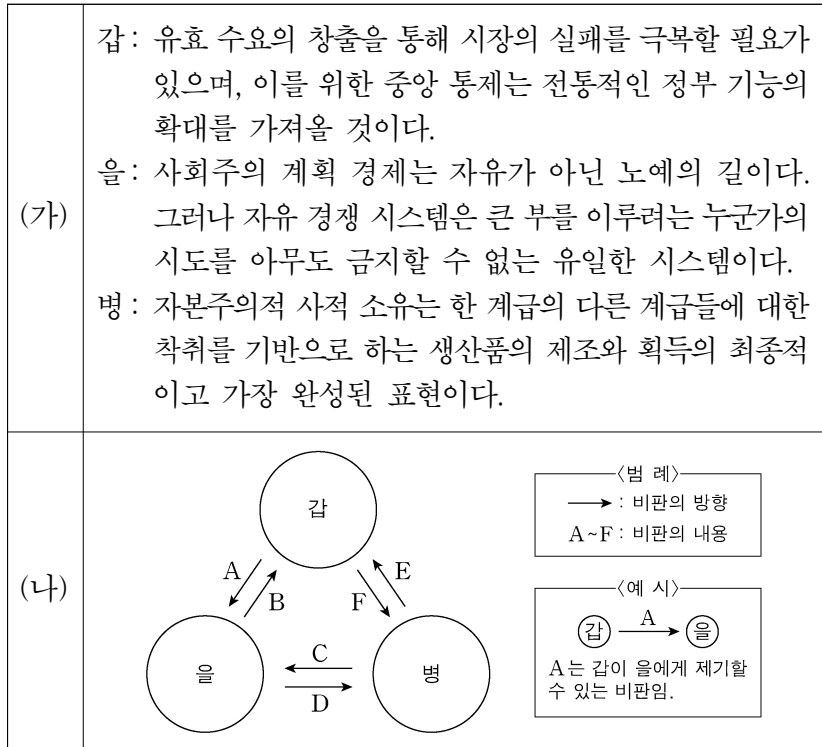
을: 목적은 좋음의 성격을 지닌다. 좋음은 이성을 위한 원칙의 근거가 된다. 따라서 자연법의 첫째 계율은 “좋음을 행하고 나쁨을 피하라.”가 된다. 자연법의 여러 계율들의 질서는 여러 자연적 성향들의 질서와 상응한다.

<보 기>

- ㄱ. 갑: 유덕한 자일지라도 사건들의 우연적 진행을 바랄 수 있다.
 ㄴ. 갑: 유덕한 자는 자신이 아닌 타인의 행복만 바랄 뿐이다.
 ㄷ. 을: 인간의 선들 중에는 동물이 목적으로 삼는 것도 있다.
 ㄹ. 갑과 을: 이성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1. (가)의 사회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A: 투자의 사회화가 정부 실패의 해법이 아닌 원인임을 간과한다.
 ② B와 E: 실업은 시장의 결함에서 파생되는 문제임을 간과한다.
 ③ C: 계급 간 대립 관계에서는 착취가 발생할 수 없음을 간과한다.
 ④ D: 재화의 이상적 분배는 경쟁의 효율적 작동에 있음을 간과한다.
 ⑤ F: 개인의 자유 실현과 사유 재산제가 양립할 수 없음을 간과한다.

12.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않은 것은?

서술형 평가

㉠ 문제: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서술하시오.

갑: 동정심으로부터 나온 행위는 칭찬과 격려를 받을 만하지만 존중받을 만한 것은 못 된다. 왜냐하면 동정심으로부터 나온 행위는 의무로부터 행하는 윤리적 내용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을: 공감은 인간 본성의 가장 강력한 원리이고, 아름다움에 대한 우리의 취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덕들에 대한 우리의 도덕적 소감을 산출한다. 그러므로 공감은 도덕적 구별의 주요 원천이다.

㉡ 학생 답안

갑은 동정심에 근거한 행위는 ㉠ 명예에 대한 경향성과 같은 인간의 경향성에서 비롯된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비록 ㉡ 의무에 맞는 행위라 할지라도 참된 윤리적 가치가 없다고 보았다. 한편, 을은 공감이 ㉢ 타인의 행복과 불행에 함께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며, 이러한 능력으로 인해 ㉣ 우리는 우리와 교류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유용한 것에 쾌감을 느끼게 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갑과 을은 모두 ㉤ 이성인 그 자체로 도덕적 행위의 원천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3. 중국 유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 꽃을 보지 않았을 때 나의 마음[心]은 꽃과 함께 적막하지만, 꽃을 보면 그 꽃의 색깔이 마음에서 일시에 명백해지니, 꽃이 마음 밖에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을: 마음이 발(發)하지 않았을 때 본성은 오히려 형체와 그림자가 없는 듯하지만, 이미 발하면 밖으로 드러난 감정으로 인해 그 본성이 마음에 있음을 알 수 있다.

- ① 갑: 도덕적 실천과 분리된 도덕적 앎은 참된 앎이 아니다.
 ② 갑: 양지를 발휘하여 인욕을 제거하고 천리를 실현해야 한다.
 ③ 을: 이치는 본성에 내재한 원리이지만 마음에 실재하지는 않는다.
 ④ 을: 경중(輕重)을 따질 경우 도덕적 실천이 앎보다 중요하다.
 ⑤ 갑과 을: 격물(格物) 공부를 통해 도덕적 앎을 완성해야 한다.

14. 현대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자유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영역을 의미하며 ‘~로부터의 자유’로 표현된다. 따라서 나의 활동에 어느 누군가가 개입하여 간섭하지 않는 만큼 나는 자유롭다.

을: 자유는 노예 상태의 반대이다. 주인의 간섭이 없다고 해도 노예가 여전히 주인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것처럼 타인의 자의적 의지에 노출되고 타인의 처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중대한 해악이다.

—<보 기>—

ㄱ. 갑: 시민의 덕성 함양을 위한 국가의 강제는 간섭에 속한다.
 ㄴ. 갑: 불간섭의 영역이 축소될수록 자유의 영역은 확대된다.
 ㄷ. 을: 법이 자의적 의지의 도구가 될 때 시민은 자유롭지 못하다.
 ㄹ. 갑과 을: 진정한 자유는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5. 한국 불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교(敎)는 밖의 문자에서 깨달음을 구하는 것이고, 선(禪)은 안의 마음을 밝히는 것이다. 교와 선은 서로 떠나지 않으니 참된 수행은 정(定)과 혜(慧)를 두루 갖추는 것이다.

을: 먼저 곧장 깨친다는 것[頓悟]은 마치 해가 쬔하고 비추듯이 모든 법(法)을 단번에 밝게 하는 것과 같고, 이후 닦는다는 것은 마치 거울을 닦아서 차츰 빛나게 하는 것과 같다.

—<보 기>—

ㄱ. 갑: 깨달음을 위해 교와 관(觀)을 함께 닦아야 한다.
 ㄴ. 을: 모든 현상은 마음 밖의 진리에 의해서 일어난다.
 ㄷ. 을: 습기(習氣)를 없애기 위해 정과 혜로써 수행해야 한다.
 ㄹ. 갑과 을: 자신의 깨달음과 함께 중생 구제에 힘써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4 (윤리와 사상)

사회탐구 영역

16. 갑, 을은 한국 유교 사상가들이다. 을의 입장에서 갑의 입장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사단은 이(理)가 발하여 기(氣)가 따르니 본래 순선하여 악이 없다. 칠정은 기가 발한 것인데, 기가 발하여 치우치면 바른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여 불선(不善)으로 흐른다.
을: 사단은 칠정 중에서 선한 것만을 별도로 지칭할 뿐이다. 칠정은 사단을 이미 포함하고 있으니, 사단은 칠정이 아니라거나 칠정은 사단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

- ① 사단과 칠정은 모두 성(性)이 발하여 생기는 감정임을 간과한다.
- ② 이는 무위(無爲)하므로 말할 수도 주재할 수도 없음을 간과한다.
- ③ 칠정은 기가 발할 때 이가 타서[乘] 표출된 감정임을 간과한다.
- ④ 사단은 이가 맑은 기를 타서 드러난 순선한 감정임을 간과한다.
- ⑤ 기가 발하지 않아도 선한 감정이 드러날 수 있음을 간과한다.

17.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행복이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라면, 행복은 최고의 덕에 따라야 할 것이다. 최고의 덕은 영혼의 부분들 중 최고의 부분, 즉 '지성'이라 불리는 부분이 가지는 덕이다. 이 부분은 영혼의 다른 이성적 부분과 같지 않다. 지성이 상대하는 대상은 신적이고 불멸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앎의 대상들 중 최고이다. 지성의 덕을 발휘하는 활동을 '관조'라고 부른다. 따라서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들 중 관조적 활동이 최고의 행복이다.

- ① 품성적 덕에 따르는 행복이 최고의 행복이다.
- ② 행복은 인간의 이성이 목표로 삼는 유일한 선이다.
- ③ 감정을 담당하는 영혼의 부분은 언제나 이성을 따른다.
- ④ 덕을 발휘하지 못해도 덕의 소유 자체가 행복일 수 있다.
- ⑤ 진리를 탐구하는 지혜는 좋음을 사유하는 지혜와 구분된다.

18.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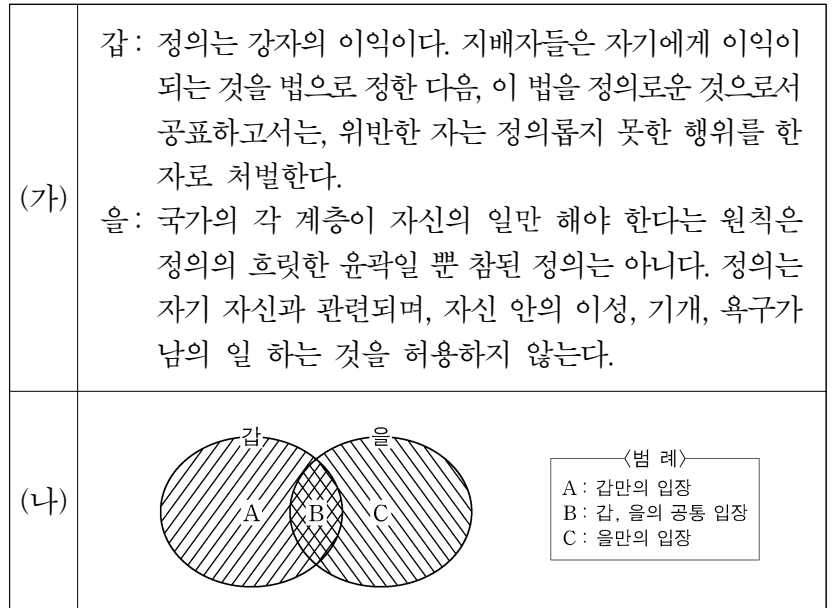
만일 천지 본연의 올바름[正]에 올라타고서 기운의 변화를 다스려 무한한 세계에서 노니는 사람이 된다면 어떤 것에 의지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지극한 사람은 자기중심적 사유에서 벗어나고[無己], 신령스러운 사람은 공적을 내세움이 없고[無功], 성인(聖人)은 세속적 명예에 개의치 않고[無名] 살아간다.

<보 기>

ㄱ. 심재(心齋)로써 정신적 자유의 경지에서 노닐어야 한다.
ㄴ. 어떠한 얽매임도 없이 자기 자신마저도 잊어야[忘] 한다.
ㄷ. 세속을 벗어나 천명(天命)을 도덕성의 원천으로 삼아야 한다.
ㄹ. 참된 지혜로써 만물의 우열을 판별하고 명예를 버려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9. (가)의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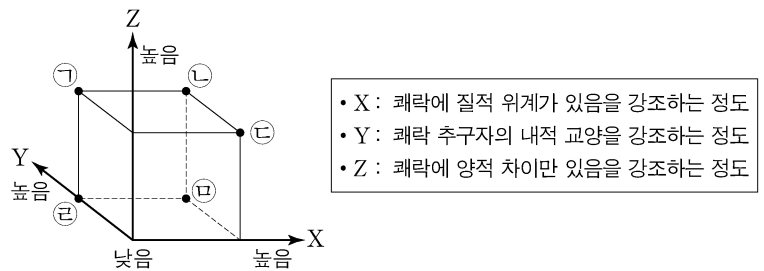
<보 기>

- ㄱ. A: 국가의 정의는 누가 지배자가 되느냐에 달려 있다.
ㄴ. A: 피지배자의 부정의한 행위는 그 자신에게 이로울 수 있다.
ㄷ. B: 처벌에 대한 두려움은 정의로운 행위의 동기가 될 수 없다.
ㄹ. C: 개인의 정의는 외적 규범보다 영혼의 내적 상태와 관련된다.

-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20. 갑, 을은 근대 서양 사상가들이다. 갑의 입장에 비해 을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자연은 인류를 고통과 쾌락이라는 두 군주의 지배하에 두었다. 쾌락과 고통의 양은 강도, 지속성, 확실성, 근접성 등 일곱 가지 기준에 따라 측정할 수 있다.
을: 어떤 종류의 쾌락이 다른 종류의 쾌락보다 더 바람직하고 가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공리의 원리와 양립할 수 있다. 쾌락을 평가할 때 양뿐만 아니라 질도 고려해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